



2012 석학 초청 특강

슬라보예 지젝 *Slavoj Zizek*

---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Is to Be Done for Politics?*

2012년 6월 27일(수) 19시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

경희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UNIVERSITY LECTURE

## 취지

바이흐로 정치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죽음이 선고됐던 정치가 ‘부활’하고 있다. 아랍의 봄에 이어 월가의 ‘점령하라’, 스페인의 ‘분노하라’ 운동이 정치를 다시 사유의 전면에서 불러들였다. 많은 정치가들이 달라진 전망을 논의하고, 다양한 철학자들이 정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의 가치체계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적인 사건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정치적인 문제의식을 다른 각도에서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치는 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했다. 정치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하기’이고, 민주주의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치는 논의의 대상이자 토론의 현장이다. 술한 말들이 교차하고 다채로운 생각들이 오가는 ‘소통의 공간’이 정치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정치의 참모습을 경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수의 말을 듣기보다 다수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적처럼 보인다. 정치는 아직 일상적 삶의 안쪽이 아니다.

정치를 삶의 문제로 내려앉히는 것, 정치를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교차할 때 가능해질 것이다. 정치에 대한 입장이 서로 마주치면서 새로운 ‘화음’을 만들어낼 때, 정치와 삶은 창조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들은 정치의 광범위하고도 심층적인 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 정치를 ‘정치의 정치’로 거듭하게 하는 철학자들의 비판적 성찰은 특정 이념과 사회에 갇혀 있는 정치를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경희대학교는 오늘날 가장 활발하게 정치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석학 슬라보예 지젝을 초청해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 for Politics?)”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지젝은 가장 대중적이면서 가장 심오한 철학적 주제들을 통해 사유의 혁신을 자극해온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철학계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찬사가 말해주듯, 역동적이면서 정열적인 그의 철학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을 발견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소개



### 슬라보예 지젝 Slavoj Žižek

슬로베니아 류블라나대학교 사회학연구소 선임연구원

1949년 슬로베니아 수도인 류블라나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철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뒤에 류블라나 대학 사회학연구소 연구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파리 8대학에서 라캉 연구로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았다. 라캉과 마르크스, 헤겔을 접목한 독보적인 철학으로 '동유럽의 기적' 혹은 라캉 정신분석학의 전도사로 일컬어지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처음에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을 출간했을 때, 그는 'MTV철학자'로 불렸지만, 이제는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철학자'로 불리고 있다. 그의 저서는 80여 종에 달하고 국내에 30여 종이 번역 출간되었다. 그가 한국 학계와 문화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지젝은 한국에서도 서구철학을 다루는 철학자 중 가장 탁월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그는 류블라나에 거주하면서 런던 버빅 칼리지와 뉴욕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1989), <삐딱하게 보기: 대중 문화를 통한 라캉의 이해 *Looking Awry: An Introduction to Jacques Lacan through Popular Culture*>(1991), <부정태와 함께 체재하기: 칸트, 헤겔, 그리고 이데올로기 비판 *Tarrying with the Negative: Kant, Hegel, and the Critique of Ideology*>(1993), <나누어질 수 없는 잔여: 셸링과 제 문제에 대한 에세이 *The Indivisible Remainder: An Essay on Schelling and Related Matters*>(1996)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할리우드의 정신분석 *Enjoy Your Symptom: Jacques Lacan in Hollywood and out*>(1992) <항상 라캉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감히 히치콕에게 물어보지 못한 모든 것 *Everything You Always Wanted to Know about Lacan(But Were Afraid to Ask Hitchcock)*>(1992) 등이 있다.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

석학 초청 특강 University Lecture은 학계와 지성사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석학을 초대해, 나라와 인류 사회의 더 큰 미래를 모색하는 '성찰과 창조'의 장입니다. 경희대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창학 정신으로,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학 초청 특강은 세계적인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실천인을 강사로 초빙해 우리 사회와 인류문명의 새로운 안목,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